

중국, 전력난 속 디젤 수급타이트

중국 정부, Sinopec·PetroChina 수출 중단 지시 ... 내수공급 확대

중국 정부가 전국적인 전력난을 완화하고자 디젤유 수출을 금지하고 나섰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5월13일 통지문을 통해 자국 정유기업들에 디젤유의 해외 수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수출은 계속 허용된다.

발전개혁위는 정유기업들에 석유 생산량을 늘려 사회적 안정 유지와 경제발전 증진을 지원하라고 강조하면서 고속도로와 도시, 농민,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2011년 동부 연안 공업지역에서 시작된 전력난이 내륙의 11개성으로 확산되는 등 전국적인 전력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무더운 여름철에는 냉방장치 가동 등으로 전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Sinopec, PetroChina 등 자국 정유회사들에 수출 대신 내수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18>